

## 와카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修辭)와 그 미학

유옥희\*

### 〈국문초록〉

일본의 전통시 와카(和歌)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는 ‘사랑’이다. 10세기를 전후하여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가나문자가 정착되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내면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주제로 한 와카는 상당히 난해한 것이 많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화려한 ‘수사법’을 동원하거나 숨기고 간직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을 읊은 와카의 변화를 보면, 대륙과의 교류가 빈번했던 나라시대에는 수사법이나 우회적인 표현이 그다지 보이지 않고 직설적이며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이 많다. 그러나 헤이안시대이후의 와카들을 보면 난해한 수사법이 빈번히 동원되며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간직하는 ‘시노부코이(忍ぶ恋)’가 가장 미적인 것으로 읊어지고 있다.

그 요인으로 연애의 형태나 결혼제도와 같은 환경에서 비롯된 ‘사랑’에 대한 미의식을 들 수가 있다. 결혼을 해도 함께 살지 않고 남자가 여자의 집을 다니는 ‘방혼제’가 일반적이었던 환경에서 사랑에 대한 미의식이 싹텄다고 볼 수 있다. 가론이나 렌가론 등의 문학론에도 비밀스런 사랑, 생각만 하는 사랑, 허무한 사랑에 대한 찬미가 주류를 이루며 ‘신비주의’가 수많은 사랑의 와카의 수사법을 낳았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와카, 수사(修辭), 시노부코이(忍ぶ恋), 일본의 결혼제도, 헤이안 시대

\* 계명대학교 일본어문화학과 교수. min@kmu.ac.kr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2011) pp. 205-235

© 201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들어가기

일본의 전통시가 와카(和歌)는 8세기 무렵부터 발달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서사시와도 같은 긴 장가(長歌)와 길이가 짧은 편가(片歌)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5/7/5/7/7음의 운율을 지닌 31 글자의 단가(短歌)가 가장 성행하여 오늘날도 ‘단가(短歌, たんか)’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단가 형태의 와카는 ‘그대를 두고 / 헛된 마음을 내가 / 품는다면 / 스에노 마쓰야마를 / 파도가 넘을 걸요 君をおきてあだし心を我がもたば末の松山波も越えなむ<sup>1)</sup>’라는 것처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신세대가 모던한 감각으로 ‘몇 겹이나 / 그대의 사랑에 / 담뱃 싸여서 / 애플파이의 / 사과가 되고 싶어 何層もあなたの愛に包まれてアップルパイのリンゴになろう<sup>2)</sup>’와 같은 사랑시를 적극적으로 읊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 여성이면서 와카를 읊었던 손호연은 ‘그대여 / 내 사랑의 깊이를 / 가늠하려고 / 잠시 잠깐 눈을 / 감으셨나요 君よわが愛の深さをためさむとかりそめに目を閉じたまひしや<sup>3)</sup>’로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읊어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0세기 이래 왕의 어명으로 엮은 와카집인 칙찬집(勅撰集)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四季)과, 축하의 노래(賀), 행사의 노래

- 1) 헤이안시대의 『고킨슈』(古今集)에 있는 관동지방의 서민의 노래, 작자미상.
- 2) 『샬러드기념일』(サラダ記念日)이라는 단가집을 내서 소녀 취향의 사랑시를 읊어 베스트셀러 가인이 된 다와라 마치의 작품. 위의 작품은 다와라 마치의 『갓 지은 와카입니다』(とれたての短歌です)에 수록됨.
- 3) 이 와카는 아오모리현의 룩카쇼무라(六カ所村)에 시비(詩碑)로 제작되어 세워져 있다. 손호연은 한국적인 정서를 살리면서도 와카의 음율을 잘 살려 많은 작품을 남겼다. 가집으로 『풍설의 가인』(風雪の歌人, 2001)이 있다.

(雜), 애도의 노래(哀傷) 등의 다양한 부타테(部立,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戀)’의 부타테는 반드시 들어있다. 특정한 제목 하에 읊은 와카의 제목을 분류한 『헤이안와카 가제색인』(平安和歌歌題索引)(嬰麦會, 1986: 21-236)에 보면 ‘사랑(戀, こひ)’과 관련된 제목이 가장 눈에 많이 뜨인다. 10세기 무렵부터 ‘히라가나’라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자가 정착됨으로서 여성들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다. 만남의 기회가 적었고 주로 밤에만 만났던 남녀간의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와카는 최고의 대화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랑을 테마로 한 많은 고대 와카들은 난해한 것들이 많다.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읊거나, 만나지 못한 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거나, 혼자서만 몰래 간직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보는 미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수사법이 동원되었던 헤이안시대(794-1185/1192)의 사랑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가 있어야 할 정도이므로 이때의 사랑의 언어를 연구한 『왕조 연사 연구』(王朝戀詞の研究)(西村享, 1972)라는 방대한 저서가 나올 정도이다.

대표적인 와카를 모아 놓은 일본의 가집(歌集) 『백인일수』(百人一首, 13세기 성립)에 실려 있는 아래 작품을 보면 ‘감추는 사랑 忍ぶ戀’이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미학으로 여겨졌음을 엿볼 수 있다.

구슬끈(목숨줄)이여 / 끊어질 테면 끊어져다오 / 길어지면  
 숨기고 간직하는 마음이 / 행여 약해질까봐 (신고킨슈)  
 玉の緒よ絶えなば絶えねながらへば忍ぶことの弱りもぞする (新古今集)

‘타마노 오(玉の緒, たまのお)’라는 것은 목걸이와 같은 것에서 구슬을 꿰어 놓은 끈을 가리키는 것으로 끈이 끊어지면 구슬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므로 목숨줄의 비유로 쓰이고 있다. 목숨줄이라는 의미의 ‘魂の緒’와 발음이 같다.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사랑을 몰래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데 오래 살면 견디는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우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의미이다. 작가 ‘쇼쿠시나이신노’(武子内親王)가 왕녀이면서 이세신궁의 신녀였던 탓도 있지만, 다분히 이러한 비밀스런 사랑의 감정을 미화하는 문학적 환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를 읊는 환경과 작자 층이 다른 우리 시조와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문제제기의 단초를 위해 우리 시조의 사랑표현을 일별해 보면 화자가 뭐가로 화(化)하여 임의 곁에 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이 눈에 많이 뜨인다. 예를 들면 접동새, 귀뚜라미, 실술(蟋蟀), 제비, 뿔버들, 학, 달, 꿈 등으로 화하여 임의 곁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몸이 여져서 님의 蠹의 술이 되어  
 흘러 속의 드러 님의 안홀 알고란자  
 미야코 박절한 뜻이 어너 궁귀 들었노고.

작자미상 (근화약부)

님 그린 상사몽이 실술의 녀이 되어  
 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박효관(가곡원류)

뿔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뎛  
 자시난 창 빛과 심겨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 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

홍랑(오씨장전사본)

‘임의 마음을 알고 싶어 술이 되어 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매정하고 박절한 마음이 어느 구멍에 들었는지 알고 싶다’, ‘귀뚜라미의 녀이 되어 임의 방에 들어가고 싶다’, ‘뿔버들을 꺾어 보낼 테니 새 잎이 나거든 나라고 생각하라’ …라는 식으로 동식물이나 사물로 화하여 임과 함께 하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엄격한 유교적 윤리 속에서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아웃사이드인 기녀들의 열정적인 사랑노래가 간혹 남아 있으며 적극적인 마음의 표출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와카의 미학에 있어서는 화자 자신이 직접 사랑의 전령으로 화하여 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본고에서는 와카에 나타나는 지극히 우회적인 표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소위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그 범위는 와카가 주류 문학으로 성행했던 중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한국에서 고대 일본문학 작품을 혼인의 형태와 가족제도 등의 사회과학적인 견해와 함께 살펴본 허영은(1999, 2001)의 연구와 『일본 문학 속의 여성』(김종덕 외, 2006), 최진희(2006)의 “헤이안(平安)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연애의 양상과 언어표현” 등이 많은 참고가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런 사랑의 찬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직설적’, ‘열정적’ 사랑의 표출

일본의 와카가 원래부터 비밀스럽고 참고 견디는 사랑이 찬미된 것은 아니었다. 대륙과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의 『고사기』(古事記)나 『만요슈』(万葉集)에 나타난 와카는 솔직담백하며 직설적인 사랑의 감정이 드러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고사기』에는 남녀 간의 음양의 이치를 통해 국토창조 신화를 나타낸 부분이 있다. 이자나기가 ‘내 몸은 만들다가 한 군데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하자, 이자나미는 ‘내 몸은 만들다가 한 군데 비워있는 부분이 있다’고 화답을 한다. 남녀의 신체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자나기는 이자나미에게 ‘나의 남은 부분으로 그대의 비워있는 부분에 끼워 막아서 나라를 만들어요’라고 한다. 음양의 합일로 국토를 낳는다는 묘사는 인간의 성이 ‘은밀함’과는 다른 생명력의 근원으로 찬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만요슈』에 수록된 관동지방의 서민의 노래 ‘아즈마우타(東歌)’에는 꾸밈없는 솔직한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낮에 풀면 / 풀리지 않는 끈도 / 우리 그님을  
 만나게 되니까 / 밤에는 쉽게 풀려 (만요슈)  
 昼解けば解けなへ紐の我が背なに相寄るとかも夜解けやすけ (万葉集)

벼를 찢어서 / 터지는 내 손을 / 오늘 밤도  
 젊은 우리 도령께서 / 잡고 울어 주실까  
 稲春けば軋る吾か手を今夜もか殿の若子が取りて嘆かん 上同

시나노 땅의 / 치쿠마 강변의 / 자갈들이라도  
 그대가 밟았다면 / 보석처럼 주우리다  
 信濃なる千曲の川の小石も君し踏みてば玉と拾はむ 上同

타마 강물에 / 보들보들 씻어 넣어 둔 / 옷감이 보들보들하듯  
 어찌 이다지도 / 이 처녀가 어여쁜지  
 多摩川にさらす手作りさらさらになんぞこの児のここだ愛(かな)しき 上同

‘임을 만나면 쉽게 치마끈이 풀린다’, ‘젊은 도령을 향한 애뜻한 마음’, ‘임이 밟으면 자갈들도 보석이 되는 이치’, 그리고 직접 서로의 피부가 맞닿는 듯한 ‘보들보들’이라는 표현 등은 애타는 마음이나 분출하는 사랑의 기쁨을 직접적(直情的)으로 나타낸 것이다. 진심 즉, 이 시대의 표현을 빌자면 꾸밈없는 ‘마코토(誠)’가 찬미되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헤이안시대에 들어서도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와 같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했던 여성의 와카는 간절하면서도 예로틱하기까지 하다.

버리려고(출가하려고) / 마음먹는 것이야 말로 / 슬프구나  
 그대에게 익숙해진 / 내 몸이라 생각하니 (이즈미 시키부 속집)  
 捨てはてんと思ふことこそ悲しけれ君に馴れにし我が身と思へば  
 (和泉式部続集)

생각이나 했으리요 / 살아 남은 채 잊지 못하는 / 이내 몸을  
 그대의 유품으로 / 여기게 될 줄을  
 思ひきやありて忘れぬおのが身を君が形見になさむ物とは 上同<sup>4)</sup>

4) 久富木原玲(1991) 「特集 古典文学にみる女性と仏教」 『国文学 解釈と鑑賞』, 80-84쪽





### 3. ‘감춤’을 찬미하는 사랑의 수사(修辭)

#### 1) ‘몰래 그리는’ 사랑의 수사

헤이안시대와 중세의 사랑을 읊은 와카는 많은 경우 ‘감추어진 사랑’, ‘남몰래 그리는 사랑’을 미화하고 있다.

흐르는 물에 / 숫자를 쓰기보다 / 허무한 것은  
 날 생각 않는 사람을 / 생각하는 것이라 (고킨슈)  
 行く水に数書くよりもはかなきは思はぬ人を思ふなりけり (古今集)

목숨줄이여 / 끊어질 테면 끊어져다오 / 길어지면  
 숨기고 간직하는 마음이 / 행여 약해질까봐 (신고킨슈)  
 玉の緒よ絶えなば絶えねながらへば忍ぶことの弱りもぞする (新古今集)

애절한 사랑의 표현을 읊은 와카이다. 자기를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보다 더 허무하다고 하고 있다. 강물에다 글씨를 쓰면 쓰는 순간 사라져 버린다. 두 번째 와카는 본고의 서두에서 인용한 대로이다.

사랑의 시작도 ‘살짝’ 본 모습에 못내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첫기러기의 / 첫 울음소리를 / 들을 때부터  
 멍하니 허공만 / 바라보고 있어요 (고킨슈)  
 初雁のはつかに<sup>5)</sup>声を聞きしより中空にのみものを思ふかな (古今集)

가스가(春日) 들의 / 눈 속을 뚫고 / 자라는 풀마냥  
 보일 듯 말듯 잠깐 / 보았을 뿐인 그대여

5) 初雁(はつかり)의 ‘はつ’과 ‘はつかに(わずかに, 아주 조금)’, ‘はづ’를 중첩시키고 있다.

かすがのゆきまをわけておひいでくる草のはつかに見えしきみはも 上同

산벗나무 / 안개사이로 / 언뜻 언뜻

보았던 그대가 / 너무나 그림구나

山ざくら霞のまよりほのかにもみてし人こそこひしかりけれ 上同

‘잠시 잠깐(はつかに=わずかに)’과 ‘처음(はつ、初)’이라는 말을 겹치거나, ‘언뜻 언뜻(ほのかに)’이라는 말들을 쓰면서 짧은 한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는 마음을 읊고 있다.

절대 드러내지 않는 마음속의 사랑, 즉 몰래 품는 사랑 ‘시노부코이(忍ぶ恋)’는 와카에 있어서 최고의 미학이었다.

어부가 배 놓은 / 말 풀에 깃든 / 풀벌레마냥

소리 내어 울지언정 / 세상 원망 안 하리 (고킨슈)

海人の菫藻にすむ虫のわれからと音をこそ泣かめ世をばうらみじ (古今集)

산이 높아서 / 아래로만 흐르는 / 물처럼

흐르면서 사랑하리 / 사랑하다 죽을지언정 (고킨슈)

山高み下ゆく水の下にのみ流れて恋ひむ恋は死ぬとも (古今集)

그리운 마음에 / 몰래 짝사랑하는 마음이 / 저버렸어요

드러내지 않으려 / 무진 애를 썼었는데 (고킨슈)

おもふにはしのぶることぞまけにける色にはいでじと思ひしものを (古今集)

봄날 연못의 / 말 풀에 노니는 / 논병아리의

다리가 쉴 틈 없듯 / 사랑을 하네요 (고센슈)

春の池の玉藻に遊ぶ鳩鳥の脚のいとなき恋もするかな (後選集)

미치노쿠의 / 시노부풀로 물들인대도 / 몰래 건디며

색깔 안 낼 거예요 / 행여 흐트러질까봐 (센자이슈)  
 みちのくの信夫もちずり忍びつつ色には出でじ乱れぞもする (千載集)

갈대밭 위는 / 아무것도 보이지 / 앉으시겠쵸  
 그 아래 무성한 뿌리 / 형클어져 있어도 (슈이슈)  
 芦根はふうきは上こそつれなけれ下はえならず思ふ心を (拾遺集)

내 소매는 / 썰물에 안 보이는 / 바다의 바위마냥  
 사람들은 몰라요 / 마를 날 없는 줄을 (센자이슈)  
 我が袖は潮干に見えぬ沖の石の人こそ知らねかわく間もなし (千載集)

『고킨슈』의 ‘사랑(恋)’의 분류에 실려 있는 와카 중에서 ‘시노부(しのぶ)’의 예로 나와 있는 것은 15예가 있다. 아키야마 켄의 『왕조어사전 王朝語辭典』(秋山虔, 2000: 208)이나 니시무라 도루의 『왕조 연사 연구 王朝恋詞の研究』(西村享, 1972)에는 이 ‘시노부(しのぶ)’에 대한 고증이 나와 있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의 ‘시노부(偲ぶ)’에서 ‘몰래 감춘다’는 의미의 ‘시노부(忍ぶ)’로 어의가 차츰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노부(偲)’는 한자 사전에서는 ‘굳셀 시’라고 되어 있어 ‘굳세다’, ‘뚝뚝하다’, ‘재주가 많다’는 뜻으로 나와 있지만, 일본에서는 사람 ‘人’ 변에 생각 ‘思’ 자를 쓴 모양 그대로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일본제 한자’라고 볼 수 있다. 위의 5번째 와카 ‘시노부 모지즈리(信夫もちずり)’라는 것은 ‘시노부(넉죽고 사리)풀을 짓이겨서 물들이는 것으로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의 ‘시노부(忍ぶ)’와 발음이 같아서 자주 인용된다.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와카에서 둘이 만나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혼자만의 몰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2) ‘속으로만 타는’ 사랑의 수사

마음에 간직한 채 속으로 타들어가는 불로 비유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예이다. ‘속으로 탄다’, ‘모깃불’, ‘연기’, ‘구름’, ‘반딧불이’, ‘후지산의 연기’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속으로 타며 / 생각하다 스러지겠쵸 / 그 연기마저  
구름 되어 사라질 테니 / 허무하네요 (신고킨슈)  
下燃えに思ひ消えなむ煙だに跡なき雲のはてぞかなしき (新古今和歌集)

사랑에 애태우며 / 바라보는 하늘의 / 뜬 구름이여  
내 속에서 타는 / 연기이런가요 (긴요슈)  
恋ひわびてながむる空のうき雲やわが下燃えの煙なるらん (金葉集)

후지산 연기처럼 / 내 마음이 탈 테면 / 다 타버려라  
神이라도 끄지 못할 / 허무한 이 연기를 (고킨슈)  
富士の嶺のならぬ思ひにもえばもえ神だにけたぬむなし煙を (古今集)

가슴은 후지산 / 소매는 기요미 고개 / 관문이던가  
연기도 파도도 / 없는 날이 없으매 (시카슈)  
胸は富士袖は清見が関なれや煙も波もたたぬ日ぞなき (詞花集)

또한 반딧불이는 마음속의 사랑의 불의 가장 적절한 비유이다.

소리도 없이 / 그리움에 불타는 / 반딧불이는  
우는 벌레보다도 / 허무한 거로군요 (고킨슈)  
音もせで思ひにもゆる螢こそなく虫よりもあはれなりけれ (古今集)

사랑에 빈민하면 / 호수의 반딧불이는 / 내 몸속에서  
그리워 떠다니는 / 혼인가 여겨져요 (이즈미 시키부슈)

もの思へば沢の蛍もわが身よりあくがれ出る魂かとぞみる (和泉式部集)

마음의 불이 있으며 / 소맷자락에 반딧불이를 / 싸 담아서  
전하고 싶어도 / 묻는 이 없으라 (신고킨슈)  
思ひあれば袖に蛍を包みてもいはばやものをとふ人はなし (新古今集)

싸서 감춰도 / 감출 수 없는 것은 / 반딧불이의  
몸에서 스며나온 / 생각의 불이여라 (고센슈)  
つつめどもかくれぬ物は夏虫の身よりあまれる思ひなりけり (後選集)

‘화톳불’, ‘모깃불’, ‘모닥불’ 등, 특히 밤에만 타는 불로 많이 비유된다.

화톳불도 아닌 / 이내 몸이 어찌 / 이다지도  
눈물의 강에 / 떠서 타는지요 (고킨슈)  
かがり火にあらぬわが身のなぞもかく涙の河にうきてもゆらん (古今集)

여름이 오면 / 집을 그슬리는 / 모깃불처럼  
언제까지 나 자신은 / 속으로만 타는 걸까 (고킨슈)  
夏なればやどにふすぶるかやり火の いつまでわが身したもえをせん (古今集)

궁궐을 지키는 / 병사들의 모닥불 / 밤에는 타고  
낮에는 꺼지듯이 / 수심에 잠기누나 (시카슈)  
御垣守衛士のたく火の夜は燃え昼は消えつものこそ思へ (詞花集)

내 사랑은 / 말하지 않을 뿐인 걸요 / 나니와 포구의  
갈대집의 모닥불마냥 / 안으로만 타는 걸요 (신고킨슈)  
わが恋はいはぬばかりぞ難波なる蘆の篠屋の下にこそ焚け (新古今集)

그대를 만나려도 / 달이 뜨지 않으며 / 잠 못 드는 밤

가슴속의 불길에 / 내 마음만 타고 있어요 (고킨슈)  
人にあはむ月のなきには思ひおきてむねはしり火に心やけをり (古今集)

해조 태우는 / 어부의 갯가 집에 / 피는 연기처럼 (신고킨슈)  
알려지니 괴로워요 / 그리움을 참을 수 없어 (신고킨슈)  
藻塩やく海人の磯屋のゆふ煙たつ名もくるし思たえなで (新古今集)

오지 않는 사람을 / 기다리는 마쓰호 포구에 / 바람이 잘 때면 (신초쿠센슈)  
해초 연기 피어오르네 / 내 몸은 타들어가고 (신초쿠센슈)  
来ぬ人を松帆の浦の夕なぎに焼くや藻塩の身もこがれつつ (新勅撰集)

‘모깃불’과 같은 것은 일상 생활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불을 강조할 때 사랑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며, 또한 3면이 바다인 일본의 특성상 ‘해조 태우는 연기’(해조를 태워 소금을 만듦)의 경우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 3) ‘찰나의 만남’과 ‘기다림’의 수사

만남을 노래한다고 하더라도 ‘찰나’뿐인 만남임을 한탄하고 끝없는 ‘기다림’을 노래한다,

그대와의 만남에 / 수심에 잠긴 / 소맷자락에 (고킨슈)  
비친 달마저도 / 눈물에 젖었어요 (고킨슈)  
あひにあひて物思ふころのわが袖にやどる月さへぬるる顔なる (古今集)

나니와 개펄 / 짧은 갈대 마디만큼도 / 만나지 못한 채 (고킨슈)  
이 세상을 살아가라 / 하시는 건가요 (고킨슈)  
浪花渦みじかき蘆のふしのまも逢はでこの世を過してよとや (古今集)

매미 울음 / 들으면 슬퍼져요 / 매미 날개웃처럼  
 열어져 가리라고 / 생각하노라면 (고킨슈)  
 蟬の声聞けばかなしな夏衣うすくや人のならむと思へば (古今集)

야고풀(생각풀) / 풀잎 끝에 맺힌 / 하얀 이슬  
 방울방울 저서는 / 손에도 안 잡혀요 (긴요슈)  
 おもひ草葉末にむすぶ白露のたまたま来ては手にもかからず (金葉集)

나니와 강의 / 갈대 줄기 한 마디 같은 / 짧은 밤이니  
 온 몸을 다 바쳐서 / 사랑할 운명인가요 (센자이슈)  
 浪花江の蘆のかりねの一夜ゆゑ身をつくし<sup>6)</sup>てや恋ひわたるべき (千載集)

오마고 하더니 / 길가의 여름풀도 / 깊어져 버렸네  
 어디로 사라졌나요 / 때까지 숨어버리듯 (센자이슈)  
 頼めこし野への道芝夏深しいづくなるらん鶉のくさぐさ (千載集)

그대와의 만남은 / 성글게 엮어 놓은 / 이요의 발처럼  
 점점 더 이내 몸을 / 쓸쓸하게 하네요 (시카슈)  
 あふことはまばらにあめる伊予すだれいよいよわれをわびさするかな (詞花集)

만남이란 / 눈물 구슬을 켜 / 끈이던가요  
 잠깐만 끊어지면 / 떨어져 흩어지니 (시카슈)  
 あふことや涙の玉の緒なるらんしばし絶ゆれば落ちてみだる (詞花集)

‘갈대 줄기 한마디’의 기다림, ‘매미 날개’, ‘발처럼 성글 드문 만남’, 헤어지면 ‘눈물 구슬을 켜 끈’이 터져 버린다는 아쉬운 만남이 강조된다.

6) 濡つくし(みおつくし, 땀길을 알려주는 ‘수로표’), 身をつくす(みをつくす, 몸을 다바친다)라는 2가지 동음이의어를 중첩시킨 것.

산새의 처진 꼬리 / 길고 긴 것처럼  
 기나긴 밤을 / 나 혼자 잠들어요 (슈이슈)  
 葦引きの山鳥の尾のしだり尾のながながし夜をひとりかも寝む (拾遺集)

익숙해지면 / 싫증나 괴로우므로 / 스마 어부의  
 해조 태우는 옷처럼 / 성근 것일까요 (신코킨슈)  
 なれゆくはうきよなればや須磨の海人の塩焼衣まどほなるらむ (新古今集)

들어 보셨나요 / 하늘 위를 부는 / 바람조차도  
 소나무에 깃드는 / 속삭이 있다는 걸 (신코킨슈)  
 聞くやいかにうはの空なる風だにも松に音するならひありとは (新古今集)

‘산새의 긴 꼬리’는 긴 시간의 비유이며, 어부의 성글고 거친 옷은 ‘드문 만남’의 비유로 쓰이고 있다.

또한 ‘풀벌레 울음’은 ‘기다림’의 수사에 많이 쓰이고 있다. 방울벌레 ‘마쓰무시(松虫)’<sup>7)</sup>가 사랑을 노래한 와카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마쓰(松)’에 동음이의어인 ‘마쓰(待つ)’를 이입하여 사랑의 시에 ‘사람을 기다리는 풀벌레 人待つ虫(히토마쓰무시)’, ‘누구를 기다리는 풀벌레 誰待つ虫(다레마쓰무시)’의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오신다던 때도 / 지나가 버린 / 가을 들녘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 방울벌레 구슬프네  
 こむといひしほどもすぎにし秋ののにひとまつ虫のこゑのかなしき (古今集)

7) ‘마쓰무시(松虫)’와 ‘스즈무시(鈴虫)’의 명칭은 오늘날과 반대라고 한다. 즉, 옛날에는 방울벌레는 마쓰무시라고 하고 청귀뚜라미를 스즈무시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스즈(鈴, 방울)’라는 글자 그대로 방울벌레는 스즈무시, 청귀뚜라미는 마쓰무시라고 한다. 방울벌레는 방울소리처럼 고운 소리를 낸다. 옛날에는 소리로서는 방울벌레를 좋아하되, 기다린다는 동음이의어(掛詞)로 활용하기 좋아서 마쓰무시(松虫)라고 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된다.



와카의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 ‘기충성(寄虫恋, 풀벌레 소리에 사랑의 마음을 빗땀)’, ‘충성증연(蟲聲增戀, 풀벌레소리가 연심을 돋우고)’과 같은 것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풀벌레로 인한 밤의 적막감, 고요함과 쓸쓸함, 외로운 침소를 상징하는 언어이다. ‘기충연(寄虫恋)’, 즉 풀벌레에 가탁한 사랑을 나타내는 제목은 『국가대관』(国歌大觀)을 살펴보면 총 84件이 나와 있다.

#### 4. ‘은밀한’ 사랑과 그 미학

##### 1) 혼인의 형태와 사랑관

일본 고대의 혼인 형태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다카무레(高群逸枝, 1966)의 연구가 그 기반을 이루었으며 한국에서는 허영은(1999, 2001)의 연구가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이 시대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동서(同棲) 생활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신부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처방혼(妻訪婚), 혹은 사위를 데려온다는 의미에서 서취혼(婿取婚)이라 하는데 주로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생활을 같이하는 결혼생활과는 달랐다.

‘사위(むこ)’라는 말은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며느리(よめ)’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워 혼인이 데릴사위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혼인이 정해지는 것이나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다. 작품 중에 ‘없다(居ず)’, ‘떠나다(去る)’, ‘살지 않다(住まず)’로 표현된다면 이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허영은, 1999: 138-145).

첫날밤을 지내고 남자는 새벽녘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여자에게 ‘기누기누(後朝, 衣衣)<sup>8)</sup>의 글이라는 와카를 읊어 보내야 했다. 와카를 얼마나 빨리 읊어 보내는가, 어떤 내용으로 읊느냐에 따라 사랑을 가늠하기도 했다. 여자는 병풍이나 발을 치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대면하기 때문에 직접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은 3일째 되는 날이었다(김중덕 외, 2006: 18).

문학 작품에 나타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의 단계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최진희(2009: 27-51)의 “헤이안(平安) 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연애의 양상과 언어표현”을 참고하면서 정리해 보았다.

- 1) 엿보기 (가이마미 垣間見)
- 2) 와카 주고받기 (和歌の贈答)
- 3) 밤에 몰래 찾아가기 (요바이 夜這い)
- 4) 결혼 (가요이 通い)
- 5) 새벽에 헤어지는 아쉬움을 와카로 읊어 보냄  
(기누기누노 우타 後朝の歌)
- 6) 발길이 뜰해짐 (요가레 夜離れ)
- 7) 기다림의 시간 (나가메 眺め, 모노오모이 物思い)
- 8) 꿈과 환영 같은 사랑을 회고함  
(꿈 夢, 갈대의 마디 芦の間, 모닥불 등의 허무함의 비유)

귀족시대에는 이러한 사랑의 단계에서 와카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앞의 절에서 보았듯이 엿보기의 단계에서부터 ‘언뜻 본’ 모습을 마음에 담고 못내 그리워하는 마음을 읊고, 남자 쪽에서 먼저 와카를 보내어 여자가 화답의 와카를 읊으면 서로 주고 받는 증

8) ‘기누(衣)’라는 말은 옷이라는 뜻으로, 남녀가 두 사람의 옷을 포개어 덮고 동침한 후, 이튿날 아침 각자의 옷을 입고 헤어진다는 데서 비롯된 말.

답(贈答)의 단계로 접어든다. 여기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사랑의 수사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져 ‘밤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닌 ‘요바이(夜這い)’가 이루어지고 새벽에 헤어지는 아쉬움에 ‘기누기누노 우타(後朝の歌)’를 보내고, 밤에 찾아가는 ‘가요이(通い)’가 계속되면 사실상의 결혼 생활이 된다.

밤에 떠남을 의미하는 ‘요가레(夜離れ)’가 되면 여성은 하염없이 기다리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나가메(眺め)’와 수심에 잠기는 ‘모노오모이(物思い)’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된다. 꿈과 환영 같은 사랑의 순간을 회고하며 찰나적인 사랑을 애달파하며 마지막에는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수가 많다.

주로 와카가 적극적으로 읊어지며 그 미학이 정착된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의 형태가 정착이 되었던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1192)였다고 볼 수 있다. 중세 가마쿠라(鎌倉)시대(1185-1333)의 수필이면서도 헤이안귀족문화의 미학을 이어받고 있는 『쓰레즈레구사』(徒然草)에는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아래 번역은 『일본 중세수필』(유옥희, 1988)에 의거했다<sup>9)</sup>.

만사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연정(戀情)을 모르는 남자는 어딘가 모자란 듯 하여 옥으로 만든 잔이 밑바닥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밤이슬에 젖어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며 부모의 질책이나 세간의 비난이 마음에 걸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번민하며 결국 홀로 자는 일이 많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리라.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색(色)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눈에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남자로 비쳐지는 것이 진정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이 아닐까? (쓰레즈레구사, 3단)

9) 지면의 제약상 원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대체 아내라는 것을 남자는 가질 필요가 없다. “늘 저 혼자 지내는 생활 이라서…”하면 어쩐지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었다더라.” 라든가 “그러저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함께 살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스레 업신여기고 싶어진다. “별로 대단치도 않은 여자를 혼자서 좋아라고 데리고 사는 거겠지” 하고 그 남자가 보잘 것 없게 추측되고, 또 멋있는 여자라면 “그저 사랑스러워서 ‘오, 나의 태양이여!’라고 떠받들고 있는 거겠지. 뭐, 대충 그런 정도지” 라고 생각될 것이다. 하물며 집안일을 척척 꾸려나가는 여자는 더욱 매력 없다. 아이가 생겨 애지중지 키워나가는 것은 참 싫다. 남자가 죽고 난 후 비구니가 되어서 늙어가는 모습은 남편의 사후까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어떠한 여자든지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산다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어질 것이다. 여자 때문에 삶이 어중간해질 것이다. 떨어져 살면서 가끔 여자가 있는 곳에 다니며 머무는 것이 해가 가도 변함없는 애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찾아와서 머물고 간다면 반갑고 신선할 것이다(쓰레즈레구사, 190단).

몰래 만나는 사랑인지라 남이 볼까 두렵고, 밤길을 지키는 눈들도 많을 텐데 기어이 만나고자 애타는 마음이야말로 깊고 애절하게 생각되어, 그때마다 잊지 못할 일들도 많을 것이다. 부모형제가 허락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맞아들여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점연쩍은 생각이 들 것이다.(중략) 매 화향기 가득한 밤에 으스스달 아래서 서성거리고, 뜰의 이슬을 헤치며 여인의 집을 나서며 바라보는 새벽달의 정취를 나 자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한 남자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쓰레즈레구사, 240단).

다분히 문학적인 문식(文飾)이 있으며 또 작가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불자의 신분이라 위의 글들을 당시의 결혼관 내지 사랑관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와카 가인(歌人)이기도 하면서 출가 후에도 세속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지녔던 겐코(兼好)법사의 글은 당시의 사랑의 미학을 보여주기에 충분

한 점이 있다.

‘밤이슬에 젖어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며 부모의 질책이나 세간의 비난이 마음에 걸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번민하며 결국 홀로 자는 일이 많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리라’, ‘떨어져 살면서 가끔 여자가 있는 곳에 다니며 머무는 것이 해가 가도 변함없는 애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으스름달 아래서 서성거리고, 뜰의 이슬을 헤치며 여인의 집을 나서며 바라보는 새벽달의 정취를 나 자신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한 남자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등과 같은 문구들은 전술한 결혼제도와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임이 추론 가능하며 앞 절에서 본 사랑의 와카들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앞장에서 본 ‘익숙해지면 / 싫증나 괴로우므로 / 스마 어부의 / 해조 태우는 옷처럼 / (만남이) 성근 것일까요 なれゆくはうきよなればや須磨の海人の塩焼衣まどほなるらむ’는 익숙해지면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로 ‘몰래’, ‘가끔’, ‘밤’에만 만나는 사랑이 찬미되고 있다. 헤이안시대를 전후한 시대에는 남녀가 실제로 ‘비밀’스러운 ‘찰나’적인 만남에 의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다반사였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미학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 다른 아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인 것이다. 최근에 영화화된 「천년의 사랑 히카루 겐지 이야기」(千年の恋 光源氏物語)에 흐르는 ‘꿈인가 생시인가 환영인가, 세상은 잠시 잠깐뿐인 것을 夢かうつつか幻かこの世のことはかりそめぞ’는 찰나의 삶과 사랑을 이야기하며 영화 전체를 지배한다. 이 문구는 바로 『금강경』의 「比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의 일본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찰나’를 긍정

하는 불교가 헤이안 여성들의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벚꽃, 꿈, 거품, 등꽃, 풀꽃, 풀벌레, 하루살이, 매미허물(空蟬), 떠 있는 배(浮舟), 부교(浮橋) 등이 찰나적 삶 속에서도 더욱 짧은 찰나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미지이다. 애수를 동반한 잔잔한 아름다움을 기조로 한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sup>10</sup>라는 미학이 이 시대를 지배했으며 인생자체가 허무하고 덧없으며 순간순간 찰나의 빛을 발하며 명멸(明滅)할 뿐임을 이야기한다(유옥희, 2010: 54-56).

## 2) 렌가론(連歌論)과 가론(歌論)으로 보는 사랑의 미학

렌가론과 가론에는 ‘사랑’을 읊을 때는 어떻게 읊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sup>11</sup> 와카에서 파생되어 다수의 사람이 번갈아서 시를 읊는 렌가는 기본적으로 와카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렌가의 작법과 정서에 대해 논하고 있는 렌가론서(連歌論書)인 『소기소신쇼』(宗祇初心抄)에 다음과 같은 사랑시의 본의에 대해 나와 있다.

〈‘사랑’ 렌가가 본의를 거스르는 것〉  
 꼭 온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와서  
 나를 그 사람이 그리워하겠지  
 내 생각 하는가 하고 이별에 잠시 미련을 두고

10) ‘모노(物, 대상)에 접했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정취, 애수(파토스), 유교적 권선징악, 윤리개념을 거부하는 일본 고유의 미학

11) 이하, 렌가론과 가론의 한글역은 필자에 의함.

이것은 모두 ‘사랑’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랑’의 본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주지 않음을 원망하고 헤어져 그리워하고, 기다리다 날 저물어 감을 한스러워 하고, 소문이 나는 것을 꺼리고, 그리다가 죽는다 등의 여러 가지로 마음을 졸이는 것을 사랑의 본의라고 하는 것이다. 나를 그 사람이 그리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랑’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소기쇼신쇼)

恋連歌本意をそむく事  
 かならずといひつる人のけふは來て  
 われをや人のおもひ出らん  
 思ふかと別にしばしやすらひて

是皆恋の心に違ひ候、恋の本意と申すは、問れぬを恨み、別るるをしたひ、待暮をうきと悲み、名の立をいとひ、忍はつるなどと色々に心を盡すを恋の本意と申べく候哉、我を人の思ふ顔なること葉、恋の本意にたがひ候。

(宗祇初心抄)

상대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우는 애절한 마음을 읊어야 하는 것이며 사랑받아 행복한 기분을 읊는 것은 사랑 렌가의 ‘본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은 인간적인 번민, 그리움이 독자에게 정서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이카이에 특히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 렌가론서(連歌論書) 『시호쇼』(至宝抄)에도 다음과 같이 사랑의 본의가 나와 있다.

‘사랑’에는 듣는 사랑·보는 사랑·기다리느 사랑·감추는 사랑·만나는 사랑·헤어지는 사랑·원망하는 사랑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경우나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든 내용으로 읊어서는 아니 된다. 듣는 사랑이란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을 바람결에 듣고부터 지나 깨나 그리워하고 오지도 않는 서신을 기다리고 글자 한 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보는 사랑은 뜻하지 않게 길가에서 가마에 쳐진 발 틈으로 찻눈에 반하였거나 또한 어

면 집의 들창이나 휘장 그늘로 살짝 보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누가 다리를 놓아 주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마음이다. 기다리는 사랑은 (중략) 하루해가 천년과도 같은 생각이 들어 조바심하는데 물억새 나무끼는 소리, 억새꽃이 손짓하는 것도 그대인 듯하고 해거름이 되면 다른 얼굴로 문언저리에 서서 기기다리고, 평상복에도 은은히 향을 스미게 하여 밤이 깊어 감을 슬퍼하고, 저녁을 기다리는 종소리 (후략). (시호쇼)

恋には聞恋・見恋・待恋・忍恋・逢恋・別恋・恨恋、其外さまざま御入候、いづれも人に恋ひらるるやうには不候、聞恋とはまだ見ぬ人を風の便に聞てより、起伏物思ひとなり、あらぬ便をたのみ、一筆をも伝へまほしく思ふ心也、見る恋は思はざるに道の辺りにて輿車の簾の隙より見初、又さる家の簾、几帳の蔭より仇に見、其涕忘れずして、如何なるたよりも哉と思ふ心也、待恋は(中略)一日の内に千年をふる心ちして待詫たるに、萩の葉の音信、花薄のまねくをも君かと思ひ、夕暮になればさらぬ顔にて門の辺に立やすらひ、尋常の衣にも空焼して更行をかなしみ、待宵の鐘の音(後略). (至宝抄)

역시 비슷한 내용이면서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다. ‘사랑 받는’ 내용을 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얼핏 들은 모습, 얼핏 바라본 모습에 애를 태우는 것이 아름답다는 입장이다. ‘가마에 처진 발 틈으로’, ‘들창이나 휘장 그늘’로 살짝 본 모습이라는 것은 환하게 드러난 것보다는 살짝 ‘가려짐’을 통해 감성과 관능을 자극하는 일본적인 미학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족시대의 주택의 모습에서 특히, 주렴, 발, 가리개 등이 무수히 많이 보임은 이러한 미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첫사랑’의 미학에서 특히 이러한 특성이 강조된다.

#### 첫사랑

주렴 밑으로 살짝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보지도 못한 사랑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마음을 읊는 것이다. 사랑을 산에 비유하면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이렇게 헤매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며, 포구의 배에 비유하면 애태우기 시작한다라고도, 또는 소맷자락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때부터 (눈물을) 짜낼 수 없다면 결국은 피눈물로 물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初恋

玉だれのひまにほのかにみそめ、又は人づてに聞てみぬ恋に思ひそむる心をもよむ也。恋の山によそへては、入そむるよりかくふみ迷へばはてはいかならんともいひ、浦舟にたとへては、こがれそむるとも、又は袖の露かけそむるよりしほりあへねば、はてはちしほやそめんともいへり。

무엇보다도 가론에서 가장 찬미되는 것은 앞에서 본 ‘시노부 코이(忍ぶ恋)’말하자면 ‘몰래 사랑’이다. 근세에 편찬된 가론서이지만 와카의 미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쇼가쿠와카시키』(初学和歌式)(有賀長伯, 1696)를 보기로 하자.

몰래 사랑

몰래 사랑은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생각이 어지러우면서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거라고 참는 것이다. 대개 참는 사랑의 와카는 흐르는 눈물을 소맷자락으로 훔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 눈물을 훔치는 사연을 읊으면 몰래 사랑에 적합한 것이다. 시노부산(동북지방의 명소)에 빗대어 읊을 때는 시노부(역주: 몰래한다)라는 이름에 비유하여 말한다. 처마 끝에 걸어 놓은 시노부구사(역주: 녀줄고사리)를 읊을 때도 시노부라는 이름에 빗대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두, 몰래 하는 사랑은 뭔가에 비유하거나 그냥 읊더라도 노래 속에 남몰래 참는 마음을 깊이 담아야 한다. 결국 소맷자락의 눈물이 들키지 않으면 사연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읊는다. 또한 이렇게 숨겨도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한탄하는 마음을 읊는 것이다. 또는 눈물은 진정이 되어도 아직 소맷자락에 남아 있음을 읊는 것은 좋은데 드디어 상대만을 원망하는 마음을 읊으면 드러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짜이 되는 말> 남몰래, 눈치 채지 못한다. 새나가지 말아야(소매의

눈물에 빗대어), 흠치는 소매의 눈물, 시노부산, 처마의 시노부구사, 들리지 말아야, 남들이 알는지, 눈물을 삼킨다. (쇼가쿠와카시키)

忍恋

忍恋は、心にはかぎりなく思ひみだれながら、色にいださじとしのぶ也。大かた忍恋の哥はこぼるゝ泪をそでにをさふる心をいへり。なみだをゝさふるよしへば忍恋に叶ふ也。しのぶ山〈陸奥の名所也〉によせていふは、しのぶというふ名によせて云。軒のしのぶによそふるもおなじ。すべて忍恋は、物によそへてもたゞごとにも一首に忍心をふかく思ひめぐらすべし。所詮袖の泪もらさねば人いまだ知ぬよしをいふべし。又はかくしのべとも、心の色やあらはれて人にしられんとなげく心をも読也。又は泪はをさふれども猶袖にあまるなどいふ迄はよし、やう／＼人のみとがむる心などをいへば顕恋になる也。此程を思ふべし。

よせの詞、人しれぬ、色みえぬ、もらさじな〈袖の泪によせて〉、をさふる袖、しのぶ山、軒ばのくさ〈忍草也〉、しられじな、人しるらめや、つゝむ泪。(初学和歌式)

절대로 내색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눈물을 흠치는 사연’을 읊으면 몰래 사랑에 적합한 것인데 ‘상대만을 원망하는 마음’을 읊으면 ‘드러난’ 사랑이 되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시노부 코이(忍ぶ恋)’는 ‘둘만의 은밀한 사랑’이 아니라 ‘혼자만의 마음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운, 깊이, 어슴푸레함, 섬약함을 강조하는 일본 와카의 미학에서는 이 혼자만 간직하는 사랑이 최고의 미학이었던 것이다. 후대에 여인의 이름에 ‘시노부(しのぶ)’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5. 나오며

일본의 전통시 와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는 ‘사랑’이다. 10세기를 전후하여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가나’문자가 정착되어 남녀를 불문하고 내면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주제로 한 와카는 그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것이 많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화려한 ‘수사법’을 동원하거나 숨기고 간직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을 읊은 와카의 변화를 보면, 대륙과의 교류가 빈번했던 나라시대(710-794)에는 수사법이나 우회적인 표현이 그다지 보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분출하는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많다. 그러나 헤이안시대(794-1185/1192)이후의 와카들을 보면 난해한 수사법이 많이 동원되거나 드러내지 않고 몰래 감추고 간직하는 소위 ‘시노부 코이(忍ぶ恋)’가 가장 미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말하자면 비밀스런 사랑이다.

그 요인으로서 사랑의 시작이나 결혼제도와 같은 환경에서 비롯된 ‘사랑’에 대한 미의식의 요인을 들 수가 있었다. 특히 헤이안시대에는 사랑의 시작이 ‘가이마미’라는 ‘옛보기’에서 시작되어 밤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새벽이 되면 헤어지고, 결혼을 해도 함께 살지 않고 남자가 여자의 집을 다니는 ‘방혼제’가 일반적이었던 환경에서 사랑에 대한 미의식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가론이나 렌가론 등의 문학론을 보면 둘이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내용을 읊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익숙해짐’을 금기시 한다.

절정의 사랑을 노래한 것보다는 기다림과 이별을 노래한 것이 훨

씬 많다. 몽환포영(夢幻泡影), 회자정리(會者定離)이므로 사랑도 차  
나에 집중한다. 비밀스런 사랑, 생각만 하는 사랑, 허무한 사랑에  
대한 찬미가 주류를 이루며 ‘신비주의’가 수많은 사랑의 와카의 수  
사법을 낳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이후 한일 간의 사랑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음을 찬미하는 유교적 심성 하에 영원한 사랑  
에 대한 회구가 강하다. 헤어져도 마음을 담은 사랑의 징표를 전하  
려고 애를 쓰며 적극적이고 솔직하다. 일본인들의 지나친 ‘감춤의  
매력’,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성향과는 달리 ‘진정(眞情)’, ‘진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전 시가들을 좀 더 섭렵하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 앞으로 양국의 문화 차이와 공통  
점을 찾아 ‘사랑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종덕·김수희·문명재 외 11인(2006), 『일본 문학 속의 여성』, 서울: 제이앤씨.
- 유옥희(2010), 『하이쿠와 일본적 감성』, 서울: 제이앤씨.
- \_\_\_\_\_ (1988), 『일본 중세수필』,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최진희(2009), “헤이안(平安)시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연애의 양상과 언어표현”, 계명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박사학위 논문.
- 허영은(1999), “平安時代の 혼인거주 형태에 대해”, 대구대학교, 『人文学論叢』, 제19집, 123-146쪽.
- \_\_\_\_\_ (2001), “일본 중세의 가부장제 성립과정-여성지위의 변천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人文学論叢』, 제22집, 63-146쪽.
- 秋山虔(2000), 『王朝語辞典』, 理想社.
- 有賀長伯(1696), 『初学和歌式』, 京都書肆.
- 高群逸枝(1966), 『招婿婚の研究』, 東京: 理論社.
- 西村享(1972), 『王朝恋詞の研究』, 東京: 印刷株式会社.
- 嬰麦会(1986), 『平安和歌題索引』, 早稲田大学印刷所.
- 久富木原玲(1991) 「特集 古典文学にみる女性と仏教」 『国文学 解釈と鑑賞』, 80-84頁.

원고접수: 2011. 05. 23

원고수정: 2011. 05. 30

게재 확정: 2011. 06. 07

〈Abstract〉

## Rhetoric of Love in Wakas and It's Aesthetics

Ok-Hee You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mes of the Japanese traditional Waka poem is love. That is because Kana characters, a writing form so easy that a poorly-educated could learn it, were widely spread during the 10th century. This led to an atmosphere where every man and woman freely expressed one's inner thoughts and feelings. However, there are many Wakas about love which are considerably difficult to interpre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ndirect expressions of one's heart were common and many fancy rhetorical devices were used as a means to move the beloved one's heart.

The Wakas about love in the Naraera(710-794), when Japan had frequent cultural exchanges with the Chinese continent, feature direct expressions rather than fancy rhetorics or indirect expressions. On the other hand, the Wakas after Heianera(794-1185/1192) considered the 'shinobukoi(忍ぶ恋)' style as the most aesthetic. 'Shinobu koi' is a poetic expression which uses lots of complex rhetorical devices and hides one's inner side. 'Shinobu koi' is, so to speak, a secret or one-sided love.

The main reason such poems arose is due to an aesthetic sense

of love which emerges in the beginning of love or within the marriage institution. Especially in the Heian period, people began love with ‘kaimami(垣間見)’: peeping, shared love at night, and parted at dawn. What is more, a man usually visited a woman's house even after marriage. In this atmosphere, an aesthetic sense of love arises. The literary theories such as ‘karon(歌論)’ or rengaron (連歌論) assert that you should not just recite bald stories about couples sharing the joy of love. Rather, it was a secret or unrequited love that was mainly praised. It is this mysticism that brought about so many complex rhetorics in Wakas.

**KEY WORDS** : waka, rhetoric, shinobukoi, Japanese marriage institution, Heian period